

축사

먼저, 6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고려 초조대장경의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전산화에 앞장 서온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림스님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수고를 다해 준 각 대학교의 교수와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에서도 고려대장경이야말로 인류의 최고 자산이자 문화의 寶庫일 것입니다. 고려 초조대장경은 비록 대장경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제작된 것이지만, 해인사에 모셔진 팔만대장경의 모체로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대장경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초조대장경이 지금까지 모두들 사라졌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7년 초조대장경의 진위가 소개된 이후, 일본 불교계는 물론 학계 전문가에게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던 그야말로 천년의 秘藏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다시 우리 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고려대장경연구소와 하나조노대학 국제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1,800여권의 초조대장경을 흔쾌히 제공해 준 일본 임제종 남선사가 있었기에 전 세계적으로도 前例가 없는 대장경 전산화 佛事가 이루어졌습니다.

내년,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조성되기 시작한 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뜻 깊은 해를 맞이하여 금세기에 다시 고려 초조대장경을 보게 된 일이야말로 역사적인 의미를 넘어 부처님의 가피라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장경은 나라가 국난에 처할 때마다 국민의 염원과 희망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준 민족사의 성보입니다. 이제 천년의 세월을 넘어 종단과 정부, 국민 모두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합니다. 2011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국민화합의 계기로 기념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고려 초조대장경 조사완료 보고회’는 무엇보다 의미 있는 행사임과 동시에 현대사회에 걸맞은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모습을 맞이하는 자리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우리 종단도 고려대장경 천년의 해를 맞아 종도들과 각계각층,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념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新 高麗大藏經 佛事に 있어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일본 남선사와 하나조노대학에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고려초조대장경의 디지털 복원을 위해 맡은 바 직분을 다 해준 한일 양국의 모든 분들의 眞意에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2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